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5. 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IOTC 황다랑어 자원 녹색 등급, Pew는 신중할 것을 촉구 ..... 3
2.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동결로 해외 어업 지원 위기 직면 ..... 4
3. 파푸아뉴기니의 참치 어업 홀로서기 ..... 5
4. 트럼프 관세정책이 베트남 참치 수출에 미칠 영향 ..... 6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황다랑어 자원에 대해 “녹색” 등급을 부여하며, 거의 10년 동안 이어진 남획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발표. 이번 변화는 2021년에 개발된 모델 개정과 2023년 독립 검토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임
- 환경 단체들은 IOTC가 남획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2022년 평가에서는 어획량을 30%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최신 보고서는 이제 자원이 남획되지 않았으며 남획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 수산 전문가 글렌 홈즈는 새로운 평가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경고했음. 그는 어획 압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자원 회복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함
- 홈즈는 이번 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어획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음. 과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정책 변경을 추진할 경우 자원 상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황다랑어 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사전에 정해진 과학적 기준에 따라 어획량을 조절하는 ‘수확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음. 이는 다른 지역 수산 기구들이 이미 채택한 방식으로, 자원 상태와 어획 압력에 대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otc-yellowfin-stock-gets-green-rating-pew-urges-caution-in-setting-catch-totals> ('25년 02월 14일 검색)

## 2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동결로 해외 어업 지원 위기 직면

-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자금 동결로 해외 수산 보호 프로그램이 위협에 처했으며, Positive Change for Marine Life와 같은 단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
  - 2022년 USAID는 25개국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7,300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으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퇴치를 위해 추가로 2,300만 달러를 투자함
  -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가 USAID 폐쇄를 추진하면서 본부가 폐쇄되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시 해고되거나 해고되었으며, 국무부가 기관 운영을 맡음
  - USAID 자금을 의존하는 Positive Change for Marine Life와 같은 단체들은 솔로몬 제도, 인도, 호주 등에서 직원 감축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요한 해양 보호 프로젝트가 위협받고 있음
  -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위헌이라고 비판했으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불법적인 장악"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글로벌 이익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함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sup>2)</sup><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foreign-fisheries-support-in-jeopardy-after-trump-admin-freezes-usaid> ('25년 02월 14일 검색)

- 파푸아뉴기니(PNG) 수산청(NFA)은 참치 어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업데이트된 국가 참치 어업 관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저스틴 일라키니(Justin Ilakini) NFA 국장은 이 계획의 핵심은 외국과의 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음.
- 일라키니 국장은 현재 외국과 합작으로 해상에서 어획물을 처리하는 관행이 "전환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음. "이러한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일라키니는 말했음. "매년 점점 더 많은 물고기가 육상에서 가공될 것임."
- "우리는 어업 운영 현실과 우리의 인프라 역량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기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일라키니는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과의 협력 활동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음.
- 그는 "완전한 국산화로 전환함에 따라 PNG 해역에서 외국 국기를 달고 활동하는 선박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우리는 수익에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 기반 외국 선박과 비즈니스 주도 선박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출처: www.seafood.media<sup>3)</sup>

3)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3660&ndb=1> (2월 19일 기사)

- 베트남 참치 산업은 2024년 수출 실적 호조로 2023년 대비 17% 증가한 9억 8,9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음.
- 베트남 참치의 최대 수출지는 미국으로, 전체 베트남 참치 수출의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의 참치 시장 전문가인 응우옌하에 따르면, 무역 정책, 특히 미국이 잠재적으로 부과할 관세는 베트남 수출업체들에게 큰 우려 사항임.

#### ■ 미국의 참치 수입과 베트남의 역할

-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수입 참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중국산 참치 제품에 대한 이전의 관세 조치는 베트남을 포함한 대체 공급국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음. 이후 코로나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변동이 있었지만, 2024년 베트남의 대미 참치 수출 매출은 8년 전에 비해 72% 증가했음.

#### ■ 베트남 참치 수출품 및 시장 역학 관계

- 2024년 베트남 참치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미국으로의 냉동 횡감용 참치 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가공 참치와 통조림 참치 수출은 특히 하반기에 변동성이 컸음.
- 참치 통조림 부문에서 베트남은 태국, 멕시코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큰 공급국임. 최근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줄이면서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늘리고 있음. 특히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주요 참치 통조림 공급국이 되었음.
- 냉동 참치 부문에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미국에 두 번째로 큰 공급국이고 세 번째인 태국에 앞서고 있음. 이 제품의 태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 ■ 새로운 미국 무역 정책의 잠재적 영향

- 최근의 무역 조치는 미국의 참치 통조림 가격과 소비자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으로 수입되는 참치 통조림은 특혜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를 제외하고 12.5%에서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됨. 멕시코와 캐나다에 특혜 관세를 제공하는 USMCA는 여전히 유효함. 그러나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참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참치의 대미 수출은 추가 관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분석가들은 베트남에 유리한 무역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함. 미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면 대체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베트남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 참치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4)</sup>

---

4)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3602&ndb=1> (2월 13일 기사)